

## 2023년 겨울수련회 소감문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라!(신 6:4-9)’의 주제로 지난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나 자신만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중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겨울수련회 참가하여 공동체 활동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특히 2일(목) 부흥회때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여 200여명의 인원이 함께 언약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는데 옆에 있어 준 학생회 친구들 덕분에 웃으면서 수련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촌장으로서는 마을에 소외되는 친구 없이 다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수련회 하면서 친구들끼리 친해진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ㅎㅎ.. 첫째날 코스워크와 둘째 날 마을 운동회 하면서 공동체가 이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흥회 때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마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위십을 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잠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일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은혜로운 설교 해주신 목사님께도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미 학생(중3)

처음으로 마을 촌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마음으로 걱정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아이들이 수련회 활동을 잘 따라주고 협동심을 잘 발휘해주어서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해주셔서 즐길 거리가 많았고 설교나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의지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때면 기꺼이 일할 것 같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수련회 너무 재밌고 좋았어서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그래서 다음 여름 수련회가 너무 기대돼요. 중등부 모든 선생님과 학생분들 좋은 수련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ㅎ

-권예승 학생(중3)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떨리기도, 두렵기도, 설렘 가득하기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나에게 더욱 그랬다. 첫 아이의 첫 2박 3일 수련회!!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서 며칠을 지내본 적도 없었고, 수련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에 (걱정은 조금 되었지만) 기대가 되었다. 사실 수련회 첫날이 근우가 다니게 될 중학교 배정받는 날이라 기도원에 오후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침 시간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개회 예배시간에 맞춰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수련회에 들어가는 근우에게 “엄마도 중1 첫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서 그 후로 엄마는 하루종일 집에서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어. 근우에게도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게”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보내줬다. 첫날 저녁 부흥회에 학부모기도가 있어서 남편과 기도원에 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많은 추억을 가진 곳에 우리 근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 저녁 부흥회 시간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갔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욱 세상의 것들을 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유혹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박 3일 겨울수련회를 은혜중에 잘 마치고 돌아온 군우가 “몸은 힘들지만 이다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라고 담담하게 고백하였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뻔했지만 흥분된 마음을 꺾고 누르며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군우가 되기를 계속 기도할게”라고 하며 꼭 안아줬다. 하나님께서 중등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와 넘치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충현의 모든 미래세대들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응원한다.

-김근우 어머니(학부모)

처음 친구들을 수련회 자리로 초청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을 2박 3일 기도원으로 초대하는 건 쉽지 않았고 친구들은 생각보다 너무 바빴습니다. 학원과 숙제에 치여 사는 게 회사 일에 치여 사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구요 ㅎㅎ 저도 더이상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함께 기도해주셨던 학생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원 숙제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꼭 같이 기도해주세요.”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저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오지 못했지만 수련회 내내 기도했습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과 저 또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꼭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로 할 순 있는 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던 중등부 친구들의 열정과 목이 쉬어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목사님의 열정이 저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진 중등부 겨울수련회였습니다!!

-구나연 신입교사